

LPG산업 경쟁력과 정부의 역할

한국LPG가스공업협회 부회장 정 규 훈



전국에서 약 770만가구가 취사·난방용으로 쓰이고 있는 프로판은 도심 산동네·달동네나 농어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민 대중연료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사이에 프로판의 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정부 및 관련 업계가 함께 공조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LPG(프로판) 소비자가격은 전국 평균 1,277원/kg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01년의 859원/kg에서 984원/kg('02년), 975원/kg('03년), 1,128원/kg('04년)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LPG가격의 상승은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게 주요인이나, 이외에 내부적으로는 정부 및 국내 LPG업계의 여러 가지 요인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프로판은 서민연료임에도 특별소비세가 40원/kg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당초 특소세 부과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최근 밸브업체들은 국제 구리와 아연 가격이 급등했다며 지난 2월말부터 LPG 용기 밸브가격을 개당 500원씩 인상한 바 있다.

이에따라 밸브가격은 개당 4,000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 04년 개당 2,5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년여 사이에 무려 60%정도 인상된 수치로, 소비자 가격 상승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밸브가격 상승은 LPG용기 재검사 비용의 인상으로 이어져 20kg용기의 경우 개당 8,500원~9,500원선에서 9,000원~10,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고의사고를 예방한다며 오는 11월부터 차단기능형 LPG용기용밸브의 부착을 의무화했는데, 차단기능형 LPG용기용 밸브는 기존 밸브가격보다 약 1,000원정도 비싸 업계 및 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프로판은 서민연료임에도 특별소비세가 40원/kg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당초 특소세 부과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참고로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LPG고의사고는 지난 '03년의 67건에서 '04년 39건, '05년 43건이 발생하였지만,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능형 용기용밸브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 아닐까 싶다.

LPG용기에 부착돼 있는 밸브는 사용연한이 없어 재검사시마다 무조건 폐기되고 있으므로 자원낭비라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차단기능형 용기용 밸브는 기존 밸브보다 훨씬 비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밸브를 무조건 폐기할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검사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며, 협회는 가스학회를 통해 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정부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LPG업계가 공동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프로판의 가격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배송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계속되고 있는 원가상승은 배송센터의 당초 도입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LPG업계는 배송센터와는 별도로 원가절감을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를 도모하기 위해 용기재검사기간 연장, 밸브 재사용, 차단기능형 LPG용기용밸브 의무화 제외 등을 추진 중이다.

LPG용기는 신규검사후 15년미만 용기는 3년마다, 15년이상 20년미만 용기는 2년마다, 20년이상 용기는 1년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돼있으나 동 조항은 30여년전인 지난 73년 제정된 것으로 용기제조기술 향상, 용기재검사기준의 강화 등으로 인해 용기의 상태가 과거에 비해 매우 양호해졌기 때문에 현행 용기 재검사주기는 업계현실과 맞지 않다는 협회의 용기재검사주기 연장 건의를 수용하여 '06년도 정부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 된다.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LPG업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고, 관련업계의 이해와 함께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므로, 정부가 업계의 어려움과 기존 제도의 문제점 해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프로판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커다란 역할을 감당해줄 것을 기대해본다.